

마을어린이도서관의 의의와 과제

■ 일시 : 2004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본점 10층 강당

주최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주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어린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우301-82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1층
T.042)331-0092 F.242-6976 e-mail.cham@cham.or.kr

마을어린이도서관의 의의와 과제

● 사 회 김양주(배재대 교수,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상임운영위원)

● 발 표 1 어린이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박영숙(수지느티나무도서관 관장)

● 발 표 2 지역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역 공립문고 사례발표
이진우(부천문화재단 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 사서)

● 지정토론 (가나다 순)
가명현(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
김명진(책읽어주는엄마모임 회원)
박미라(모퉁이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장)
정진항(대전시의원 교육사회위원)

● 질의응답

어린이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 어린이도서관에 거는 기대와 우리의 과제-

박 영 숙(용인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1. 들어가며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공공도서관의 이념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실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도서관은 경쟁과 소외, 공동체의 해체를 극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 생성의 토대이자 그 성과물로서 공공도서관이 발전해온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근대화과정의 역사적 굴곡으로 인해 도서관이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아직도 도서관의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여 도서관과 공부방의 모호한 실정이다. 이제라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가는 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과정의 결핍으로 인한 수많은 과

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모두 합해도 471개(인구10.2만 명당 1관)에 불과한 현실에서 최소한 인구 6만 명당 1관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도 2배에 가까운 도서관이 필요하고 4~5천 명당 1관이라고 하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무려 20배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예산이나 인력, 시설 어떤 면에서도 그건 실현될 수 없는 꿈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들을 세우려는 다양한 움직임은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반드시 많은 예산을 들여 큰 규모의 도서관을 만드는 데에만 매달리지 않고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바꾸면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실현하는 일이 그리 요원하지 만은 않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어린이도서관으로 세워진 작은 도서관들의 사례는 도서관이 일상 속에 뿌리내린 평생학습의 장으로, 참여와 소통이 있는 지역 공동체문화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도서관계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켜 가는 일, 그것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2.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1) 정보복지 실현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발전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이 갖는 가장 큰 가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공공도서관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발전의 토대가 될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권리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은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이 곧 권력이 되는 현실에서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의 변화를 받

영할 만큼 발전된 ‘복지의식’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복지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데에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게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서관은 형평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정보 문화의 인프라이다. 마을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참여와 소통이 있는 역동적인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성숙된 민주시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2) 자율성, 지속성을 갖춘 평생학습의 인프라

정보화, 세계화 시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고,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급속한 사회변동에 끊임없이 새로운 적응력을 갖기 위해 계속학습 및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지구촌화’가 진행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공존과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훈련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개인의 경제능력은 물론 국민의 잠재력, 국가경쟁력까지 악화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창조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주체성, 책임감, 감성, 지도력 등을 갖춘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게 되고 노동 시간 단축, 여가 시간 증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일생동안 지속하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교육의 화두는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 중심의 근대적 교육관(교육주의)이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생활중심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수직적(시간)으로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교육을 통합하고 수평적(공간)으로는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통합하여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이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정책은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강국을 추구하려는 의지에 매달려 아직까지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습자의 자율성을 양립하지 못하면 교육 양극화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평생학습의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개체화될 경우 협동과 연대를 약화시키고 개인화와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영역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마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기업 환경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직무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되고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확대되어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기개발과 풍요로운 삶의 실현보다는 평생 생존을 위한 교육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과 학습, 여가를 통합하는 평생학습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평생학습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이 바로 도서관이다. 평생학습의 중요한 자원인 자료의 제공처일 뿐 아니라, 독서라는 행위 자체는 곧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도서관은 직업훈련 외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사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일상 속에서 학습, 정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 등 교육의 소외계층에게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개별화된 평생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학습공동체,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장이다. 지역마다 생활공간에 도서관을 세우고 형평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발전시켜 갈 때 비로소 ‘누구나 평생 배우고 알 권리를 누리며 그 배움을 나누도록 보장한다’는 평생학습의 이념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지역문화의 중심

현대 사회는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어 더 이상 정부와 시장(market)의 힘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인권,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는 제3섹터로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절실한 부문들이다. 또한 이들 사회적 서비스는 어떤 부문보다 지역의 몫을 크게 기대하게 한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인접해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추세와 병행하여 ‘지방화’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선 지방 정부와 의회, 전문가, 단체, 시민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사람이 만나지역의 각종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생산해내는 도서관은 지역에서 활발한 커뮤니티들이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무관심이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역량을 키워가는 시민사회교육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소비적인 일회성 행사 중심의 문화활동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문화 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자원 활동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공동체가 약화되고 마을문화를 잃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지역마다 역동적인 커뮤니티 형성의 토대로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장이 될 수 있다.

3. 아이들의 삶과 도서관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보려면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미래를 살아갈 존재로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올곧은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그 사회의 잠재력이자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성공을 향한 경쟁과 가족이기주의로 인해 아이들이 적응력을 기르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불신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만다.

아이들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같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아이들 곁엔 늘 행복한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지난 몇 년간 어린이도서관의 현장에서 얻은 깨달음이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 앞으로 꾸준히 실천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올바른 아동관과 어린이 인권 및 육아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에서 우리는 어린이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한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혜택의 수준이 결정되는 마는 현실에서 도서관은 정보, 학습, 문화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아이들의 주체적인 사고와 풍부한 정서를 기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1) 가장 이상적인 독서교육의 장

아이들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존재이다. 다양한 지식을 얻고 충분한 격려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맘껏 꿈을 펼치며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 그 잠

재력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데 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책은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고 풍부한 정서와 꿈을 키우는 무한한 공간이다. 어린 시절 독서습관을 기른다면 평생 책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시절부터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양의 책을 읽히거나 효과적인 독서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기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가고 있지만,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환경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독서지도’라는 명목으로 책읽기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며 또 하나의 과업으로 만들고 마는 게 현실이다. 성급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책읽기를 강요하거나 독서능력을 평가하려는 결국 아이들을 책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자녀가 좋은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아이들의 삶에서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연스레 책과 친해지면서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공간이다. 각양각색의 책이 빼곡하게 들어찬 도서관에서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을 맛보며 놀이처럼 책을 만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평생 충분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진 거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그림책 슬라이드 상영, 독서 동아리 같은 다양한 활동 경험은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습, 놀이, 여가가 어우러진 도서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평생 책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2)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는 배움의 터

독서는 모든 학습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능력이다. 능동적이고 개인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지식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지식을 웹서핑을 통해 얻는다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종이책을 통한 독서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선별된 책들이 체계적인 분

류방식에 따라 배열된 도서관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자연스레 지식과 학문의 분류체계를 익히며 자료검색능력도 기를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평등하고 자율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공간이다. 우리 교육환경에서 교실 위주의 암기나 주입식 학습법에 길들여지기 쉬운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도서관을 드나들며 스스로 자료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을 지적, 정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3)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터

아동기에는 놀이가 곧 일상이고 배움의 과정이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권리'를 누리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맞벌이 가정과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가 늘고 갈수록 위대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공간도 시간도 찾기 힘들다. 이런 현실에서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배려하여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고 아늑한 분위기로 설계된 작은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어디서든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가 어른들의 보호와 배려를 받으며 책과 더불어 유익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이 또래와 어울려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를 보내면서 풍부한 정서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4) 공동체를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터

과거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절반은 자연이 키우고 절반은 이웃, 마을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제 아이들이 맘껏 달리며 몸과 마음을 키워갈 공간도 찾기 힘들고 이웃은 물론 가족과의 교류까지 차츰 제한되고 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덕목을 얻을 기회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할 기회도 잃어버린 채 자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도서관은 책을 나누는 일상을 통해 자연스레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게 해준다. 마을마다 책과 함께 친구나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보는 눈과 따뜻한 마음을 기르며 올곧게 성장해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4. 오늘날 어린이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장으로 제몫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대상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은 1979년 세계어린이해를 기념하여 서울 사직도서관에 설립된 어린이도서관(서울 시립)과 2002년 문을 연 노원어린이도서관,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에스콰이어문화재단의 인포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한 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절반 이상의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열람실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어린이서비스에 적합한 공간이나 장서, 전문인력, 문화 프로그램 그 어떤 것도 이용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어린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지난 몇 년간 특히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사례와 경험은 어린이도서관을 향해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만든다. 어린이도서관이 우리 도서관문화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1) 도서관문화 발전의 출발점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공공도서관’이 발전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집단의 수단으로 세워짐에 안정되고 체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과 이용이라는 본래의 역할보다는 학습 공간 중심으로 운영된 결과 아직도 ‘도서관’과 ‘공부방’의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체험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도서관의 필요성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마다 도서관을 늘리고 도서관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로 민간의 힘으로 운영되어 온 여러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 단지 조용하게 공부를 하기 위한 독서실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받으며 자율

과 참여에 의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어린이를 매개로 가족들까지 도서관으로 이끌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적의 도서관을 계기로 촉발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생활공간 속에 자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끌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어린이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자원 활동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일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전체 도서관문화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2) 교육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실천의 장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시장의 열기가 끝없이 더해가는 가운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가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혼란과 고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부모들의 고백은 처절할 정도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치달으며 시험점수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아이들을 일렬로 세우는 교육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인간성을 기르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쌓아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교육과정이 입시를 목표로 하여 암기와 주입식 교육을 위주로 획일화된 가운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나 창의성을 기르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은 교육의 한 주체인 부모들이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며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모역할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관과 아동관을 배우며 아이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도 필요하다. 마을의 작은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책을 접하게 해주기 위한 요구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자녀양육과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역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독서환경을 만들어줄지 함께 고민하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찾는 다양한 노력이 실천되고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이라고 여기며 아이들에게 남보다 빨리 많은 것을 배우고 성취하도록 재촉하던 욕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고, 남들은 모두 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흔들리는 부모들이 함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이 꾸려지고 있다. 도서관의 일상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 아이에게만 매달리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부모들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자랄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도서관의 어머니 독서회나 자원 활동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느그러워지고 동시에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온전히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고 진정으로 아이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학벌위주의 사회적 통념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해마다 발표되는 사교육비경감대책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매번 임기응변으로 그치고 마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교육의 한 주체로서 부모들이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가족문화, 마을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공간

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실현하며 개인과 지역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문화환경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독서 습관을 기르고 일상적인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은 어린이문화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효과적인 지역문화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소모임과 행사, 자원 활동 등을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수동적인 대상자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쟁으로 치닫는 교육현실과 갈수록 심화되는 소외의 문제, 잠재적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흔히 ‘마을사랑방’으로 불리고 있는 작은 지역단위의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공동의 관심사인 보육, 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만나 삶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인권, 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실천하는

단체들에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그 활동의 내용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한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자원 활동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의식을 공유하여 '지역공동체 보육 및 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나아가 어린이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일의 가치를 체험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몫을 담당하게 되는 계기도 제공하였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지역마다 어린이도서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주요 동력이 되었던 많은 여성들이 주부의 역할을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남편이나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가 곧 주부의 성취로 평가된다고 여기는 불안한 정체성을 극복하면서, 반드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5. 어린이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마을마다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다.

어린이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지 몇몇 훌륭한 어린이도서관의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는 없다. 좋은 시설과 자료를 갖춘 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 작은 규모라도 어디서든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도서관을 짓는 일이 중요하다. 어린이도서관의 주이용대상이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 부모들임을 감안하면 도서관이 어디서든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설립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생활공간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도서관의 규모가 작고 생활공간에 가까울수록 어린이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난다. 공공도서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만큼의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몇 군데 큰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작은 도서관들을 늘여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2)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이 모든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봉사정신을 가진 어린이전문 사서의 역할이 절실하다. 어린이전문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지식은 물론 아동문학과 다양한 어린이 책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발달단계별 아동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토대로 올바른 아동관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기획 및 커뮤니티조직 능력도 요구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학의 도서관관련 학과를 포함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전문단체의 계속교육 과정에서도 일부 독서지도론 강좌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연수과정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전문사서를 양성하고 재교육할 기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대학은 물론 관련단체나 각각의 도서관 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담당자들이 3~4년에 한 번씩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 어린이전문 사서집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어린이도서관의 모델과 운영 매뉴얼 개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린이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탓에 무엇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땅히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현실이다. 마을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이 세워지려면 어디서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적의도서관 사업은 지금까지 6개관을 개관하고 조만간 울산에 1개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설계부터 건축, 인테리어, 설비는 물론 장서와 각종 프로그램까지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공간구성, 장서, 운영 프로그램 등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지적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많은 수의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사례를 연구, 평가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린이도서관의 모델과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4)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

도서관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설립 및 운영 자금이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만큼의 도서관을 만들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기금 마련이나 자원 활동 등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과 실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형평성을 담보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 등과 연대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발전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5)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유의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이 정보 문화의 인프라이지 평생학습의 장으로 제몫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료를 수집, 관리,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서개발, 참고/열람, 상담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 위주의 도서관 운영에 매달리다보면 자칫 기본적인 서비스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관련 활동을 마련하는 것은 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중요한 몫이지만 도서관은 형평성, 자율성, 지속성을 토대로 해야 하는 만큼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분명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문화활동은 책을 중심으로 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일방적인 수업식의 독서 지도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키우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적합한 형태는 독서 동아리나 주제별 학습 토론회 문화활동 동아리 형태의 모임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습은 물론 예체능, 취미활동까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독서지도라는 또 하나의 고급 사교육을 만들어 내거나 도서관을 '수강료가 싼 문화센터'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덧붙여, 성장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시기별로 적합한 활동의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현재의 독서 관련 활동들은 취학 전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치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좀더 장기적인 과정으로 발전시켜 부모의 영향력이 큰 10세 이전 아동기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과 10대 청소년의 또래 문화,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독서토론회나 문학답사동아리 등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리를 통한 일상적인 독서 문화활동과 다양한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미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 전시회, 부모교육, 작은 음악회 같은 행사들을 통해 요란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지역 행사들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과 부모가, 친구와 이웃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가진 아이라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마을, 이웃, 우리, 나눔 같은 단어를 만날 때 어린 시절 도서관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게 될 거라 생각한다.

6) 지역별·관종별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성화

도서관은 지역기반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요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공동체문화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들은 물론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학을 토대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어린이도서관 혹은 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사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서관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하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에 맞는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자원 활동 조직 운영과 이용자 교육

도서관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시설보다 자원 활동의 동기유발 요건을 충분히 갖춘 곳이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지식

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이용자들의 주체적, 자발적 참여와 소통에 의해 정보와 문화가 생산되고 교류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꾸준히 이용자 교육과 자원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참여와 자율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경험을 통해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도서관의 자원 활동은 이용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도서관에 대해 홍보,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용자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자원 활동으로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참여해 본 경험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서관의 운영주체나 사서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도서관에서 자원 활동가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역동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자원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자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원 활동을 유급직원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자원 활동가에게 지나친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사서와 자원 활동가 사이의 역할 경계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분장을 계획하고 새로운 자원 활동 업무를 개발하며 꾸준한 교육과 지원, 심리적 보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 활동 조직 관리와 교육을 전담할 부서가 따로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원 활동의 가치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계획에 따라 자원 활동가를 모집, 교육, 평가, 보상,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가들 사이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일체감을 높여 자원 활동 조직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6. 맺으며

도서관이 형평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며 자율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제몫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도서관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갈수록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이는 곧 전체 도서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최근 들어서는 독서교육에 대한 열의와 어린이 책 출판시장의 확대, 거기다 도서관 짓기 프로젝트에 동참한 방송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마을마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한 군데쯤 있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건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지 몇몇 훌륭한 어린이도서관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공공도서관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공사립 어린이도서관들을 포함해 모든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세우고 활발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발전시켜가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의 장서개발, 분류, 참고 열람 서비스, 공간구성,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구체적인 의제를 하나씩 공론화하여 어린이서비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담론을 이루어가는 노력도 기대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라는 제목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시사업으로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주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된다면 우리 도서관 현실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정책 입안만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도서관의 수적 증가만으로 일상 속에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짧은 시간에 도서관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 서비스를 감당할 인력이나 예산 등 동시에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모든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모아지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운동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의 이념과 체도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왔지만 이용자의 참여가 없는 도서관운동은 사회적으로 폭넓은 동력을 갖기 어렵다. 이용자들이 단지 일방적인 수혜자로서 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서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시민교육과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사서와 함께 이용자들이 도서관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는 마을마다 작은 어린이도

서관을 만들어 정보복지,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 지자체와 도서관, 이용자, 시민사회 모두가 도서관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꾸준한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발제문

부천시지역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운영사례

이 진 우(부천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총무 /
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사서)

1. 여는말

작년에 불었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의 열풍은 올해 들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그래도 작년에 수립된 도서관 설립 계획들이 하나씩 올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화려한 도서관의 외관은 이제 보다 현실적인 도서관에의 바램으로 조금씩 논의되어지고 있다. 작년에 유행처럼 번져갔던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도서관에의 관심을 불러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단, 도서관계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부천지역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되며, 참고로 다음에 실린 내용은 올해 2월에 있었던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에 실었던 내용에 현재까지 더 진행된 내용을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변화의 도시 부천

10여 년 전만해도 부천은 작은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어 높은 인구밀도에 문화 시설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서울의 작은 변두리 도시였다. 그나마 주택과 공장이 혼재해 있어 매캐한 화공약품 냄새가 떠나지 않는, 살기에는 그리 적당치 않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한편으로 소규모 공장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운동과 YMCA·경실련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낳는 조건이기도 했다. 특히 부천 작은도서관운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약대글방은 80년대부터 소규모 공장 노동자들이 밀집해 살던 약대동 주민들의 쉼터로, 교육의 장으로서 마을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각 계의 활동에 힘입어 부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민운동의 역량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중동·상동 등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공장이 서해안 지역 등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천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이라는 주요 과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와 과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계획도시에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문화 공간을 설립하는 등 부천시는 그 새로운 변화와 과제의 중심축에 ‘문화’를 내걸고, 일본 가와사키 시와의 교류를 통해 ‘마을만들기’ 등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살기 좋은 부천 만들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으로 대표되는 부천 5대문화사업의 활성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또한 브라질 리우선언에 기초한 ‘푸른부천21’의 설립은 그간 새로운 과제 찾기에 나선 시민운동역량을 살기 좋은 부천 만들기에 나서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부천 만들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부천시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안정된 도시가 아니라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발전진행형 도시라는 객관적 조건과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 할 수 있다.

3. 푸른부천21 작은도서관분과의 설립

부천시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에 근거하여 2000년 1월에 '푸른부천만들기21 추진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시민,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업인, 교수, 시의원, 언론인, 공무원 등 130여명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은 2~30명씩 몇 개의 분과로 나누어 부천이 지향해야 할 도시상을 그리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시민, 기업, 부천시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각 분과별로 의제를 작성, 수십 번의 토론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2001년 2월 각 분야별 실천계획을 작성한 '푸른부천21' 의제를 발표하고,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환경, 교통, 행정,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총 35개의 의제 중 23번인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 만들기'에 따라 2001년 초에 결성된 작은도서관분과(정식명칭 :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는 부천시립도서관, 시의원, 사립문고 3곳, 어린이도서관 3곳,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작은도서관분과는 사업목표를 '동네마다 하나씩 작은도서관 만들기'와 '도서관네트워크'에 두고 첫 번째 사업으로 '부천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도서관운동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1년 사업 목표는 작은도서관 확대를 위한 몇 개의 작은도서관 설립을 통한 모델링 사업에 두었고, 이것이 공립문고 설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4. 공립문고 설립에 이르기까지

부천시에는 2001년 당시 3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었고, 2002년 9월 '꿈빛 도서관'이 중동에 새로 개관될 예정이었으며, 이후에도 2개의 도서관이 더 설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규모의 시립도서관의 설립과 더불어 마을마다 지역주민들이 오다가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뿐 아니라 도서관이 자기 역할을 폭넓게 진행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컴터로, 문화 공간으로, 지역공동체의 구심으로서 작은도서관이 자기 역할을 해야 큰도서관도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서비스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립도서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35개의 공립문고 설립 사업을 계획하였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푸른부천²¹ 작은도서관분과가 만들어지고 이 곳의 사업목표가 작은도서관 만들기로 설정되면서 시민들의 요구와 실천이라는 힘을 얻은 마을도서관 만들기는 시립도서관과 푸른부천²¹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분과는 2001년 7월 말부터 먼저 부천지역의 도서관현황에 대한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공립문고, 사립문고, 복지관내의 도서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부천지역 사립 및 공립문고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문고들은 공간의 협소함과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립문고의 경우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고 공간을 따로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었다. 복지관내의 도서관도 공간과 장서를 갖추고 있었지만, 장서량이 2,000권 내외로 상당히 부족하고, 담당자가 없어 실제 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표3-1>참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분과는 생활권역별로 도서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과 도서관을 운영중이지만 담당자 부재 등으로 활동이 미진한 도서관 등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설립 의지 등을 타진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립문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더불어 공립문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관 등에서 보내온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6개의 공립문고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표3-2>참조)

<표3-1> 공립문고 대상지 실태조사표(2001년 7월 말 현재)

□ 공립문고 대상지 실태조사표

- 고강복지관은 현재 13평의 좁은 공간에서 어린이문고 운영 - 20평의 공간으로 이전 가능.
- 원종복지관은 문고를 설립, 운영중이나 보유 도서의 대부분이 이동도서로 운영, 문고 운영도 자원봉사자에 의존.
- 심곡복지관은 문고가 아닌, 방과후 교실 운영. 문고 3층에 설립 예정.
- 약대글방은 2002년 새로 신축하는 약대동자치센터 2층에 32평 규모로 입주 예정
- 삼정복지관은 현재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는 40평의 공간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겠다고 함.
- 역곡3동 자치센터는 현재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3층의 50평 공간을 도서관으로 변경 예정

종 류 내 용		고강복지회관	원종복지관	심곡복지회관	약대글방	삼정복지관	역곡3동 자치센터
개 요	명칭	어린이도서관 '도란도란'	원종아동전문도서관	꿈나무정보 나눔의 집	약대글방		
	주소	오정구 고강본동 324-4	오정구 오정동 139-1	소사구 심곡본동 665-13	오정구 약대동 145-1	오정구 삼정동 365-2	소사구 괴안동 108-1
	성격	어린이 전문도서관	아동전문도서관	아동이용시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면적	전체 13평	전체 50평, 열람실 40평	전체 40평, 방 10평	전체 23평	전체 40평	전체 50평
	개관시간	월-토13-19시 방학중 10-16시	월-금요일 10시-17시	13시-	매일 9: 30 ~18:30		
	집기류	서가 5개, 컴퓨터 1 대, 테이블 4개, 의자 24개	서가 18개, 컴퓨터 1대, 책상 11개, 의자 36개	서가 8개, 컴퓨터 7 개, 책상 16개, 의자 69개, 비디오 2개	컴퓨터 6대(2대 교사용, 4대 게임용)		
	주변 여건	저소득층 밀집지역 으로 아동인구 많음	다세대 주택 및 소규모밀집지역으로 아동의 수가 많음	재래시장과 인접함	서부도서관 인접, 약대동 마을 만들기	공장 지역 인접, 문화소의 지역	부천의 외곽지역 으로 문화소의 지역
장 서 현 황	전 체 보 유 도서량	1,900여권	6,000권	1930권	3,000권		
	기증 도서량	200여권	2,000권	140권	600권		
	매 년 도 서 구입비	6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한달 10권 이상 연 말 100 ~ 200권		
	하 루 평 균 대출권수	30권	70권	대출 불가	40권 이상		
이 용 자 현 황	일 평 균 이 용자 수	50명	50명	60명	40명		
	체 크 방 법	수기	입실시 자원봉사자 체크	수기			
	이 용 자 연령대	미취학아동 및 초등 학생	초등학생	6-13세아동	어린이 및 청소년		
	주 요 시 간 대	13시-17시	14시-17시	13시-18시	13시 이후		
활 동 현 황	프 로 그 램	도서열람 및 대출업 무, 책 읽어주는 방 실시	아동영 어동 화구연, 글짓기 교실	방과후 학습지도, 색 종이/영어/음악교실, 책읽는 마을	글나눔 잔치/공부방/ 박물관 탐사 등		
	동 아 리	독서동아리 준비 중		영화, 만화, 인터넷, 자원봉사 동아리			
수 행 인 력	직 원 수	아르바이트 2명		.	1명		
	자 원 봉 사 자	12명	4명	8명	3명		
앞으로의 전망 및 희망사항		올해 초 개관하여 시설적인 면을 보완 하면 지역의 독서문 화 활성화 기대	독서기능과 복지프 로그램의 결합으로 효과적인 복지욕구 를 충족시키고 아동 의 섬터로서의 기능 수행	성인 및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 을 3층에 신규 설치 하여 도서열람 및 대출업무를 실시	내년 약대동 자치센 터로 이전(32평)/마 을 만들기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현재의 독서실을 문 고로 전환 예정.	헬스장으로 운영되 는 곳을 문고로 전 환 예정

공립 문고 설립 추진 과정(2001. 7 ~ 2002. 3)

준비단계

- 부천시 도서관 현황 조사 시작(공립, 복지관, 사립, 학교) - 7월말 ~8월초
- 생활권역별 도서관 분포 분석
 - 부천을 생활권역별로 나누고, 도서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지역 조사
- 작은도서관분과원들의 창원지역 도서관 견학
- 작은도서관 추진 모델 설정
 - 공간 : 50 ~ 100평 정도 (이후 30평 내외 이상으로 수정)
 - 운영 : 시립도서관의 상호 대차 우선 지원, 도서관 운영 실무자 공동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자원 능력 배양, 문화적 인테리어를 갖춘 보다 쾌적한 환경 만들기

작은도서관 대상선정 작업

- 선정 기준
 - 복지관, 자치센터 등 공공건물에 만든다
 - 도서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한다
 -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 설립 의지가 있는 곳으로 한다.
- 선정 과정
 - 복지관 등에 도서관 설립에 관한 공문 발송
 - 의지가 있는 복지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회의 참석
- 작은도서관 설립 대상지 선정
 - 복지관 4곳(원종·고강·삼정·심곡) - 주민자치센터 2곳(약대동·역곡3동)

예산서 통과

- 변경 사항 : 예산이 2억 3천 4백으로 줄어들어 통과됨.
- 예산서 재조정 : 공립문고 대상지들과 간사가 함께 임시 회의를 갖고 예산 재배분.

공립문고 협약서 체결

- 협약서 체결까지의 과정
 - 민·관 협력으로 지역에 공립문고를 만든 사례가 없어 협약서 작성 및 체결에 어려움
 - 올해 1월부터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분과가 협약서 문구의 조정을 놓고 3차례의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쳐 올 3월 협약서 내용에 합의
- 협약서 체결
 - 심곡, 원종, 고강 복지관 공립문고 협약서 체결(2002. 3. 22)
 - 삼정, 약대, 역곡은 하반기에 체결 예정
 - 핵심적 내용 : 인건비 - 사서 1인(계약직, 공무원 10호 임금 기준)
 - 업무보조 1인(프로그램 운영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
 - 운영시간 - 각 복지관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예산 재배분
 - 2억3천4백에 맞춘 6개소 예산안을 토대로 도서관리프로그램의 공동구입 결정 및 문고 설립 시기에 따른 예산안 재배정.(공립문고 대상지들의 임시 회의를 통해 재배정).

<표3-2> 공립문고 설립 추진 과정

작은도서관분과는 이후 선정된 6개 공립문고 대상지의 사업계획 및 현황에 따른 설립 및 운영예산의 작성 후 부천시립도서관에 공립문고 설립 기획안을 발송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이 기획안을 토대로 공립문고 설립 예산안을 2002년 시립도서관의 예산에 포함시켜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결국 부천시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비록 시의회 통과 과정에서 작은도서관분과에서 기획한 2002년 6개 공립문고 설립 및 운영예산이 총 3억5천만원에서 2억3천4백만원으로 감소되었지만, 공립문고 대상지간의 논의를 거쳐 예산이 재배분되었으며, 이후 계획보다 문고가 늦게 설립된 곳으로 인해 생긴 사서 인건비와 운영비 잉여금도 공립문고 대상지간의 논의를 거쳐 재배분 되는 등 부족한 예산이지만 대상지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예산이 시행됨으로써 공립문고 설립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표3-2> 2002년 공립문고 설립 및 운영 예산 안

구분	계	고강	삼정	심곡	약대	역곡	원종
총계	234,000,000	40,643,820	35,245,930	56,643,820	35,245,930	35,245,930	30,974,570
시설, 장비구입비	86,000,000	15,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7,000,000
프로그램구입비	15,000,000			15,000,000			
인건비	45,004,650	8,934,750	5,956,500	8,934,750	5,956,500	5,956,500	9,265,650
운영비	87,995,350	16,709,070	13,289,430	16,709,070	13,289,430	13,289,430	14,708,920

* 이후 공립문고 설립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지는 문고가 생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의 잉여금을 다시 재배분하게 됨으로써 실제 각 문고의 2002년 예산은 위의 표와 다르게 집행됨.

그러나 공립문고 설립 예산이 통과되고, 시립도서관의 각 대상지 실사 이후 협약서 체결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면서 시립도서관과 공립문고 대상지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분과 사이에는 협약서 내용 및 공립문고 운영 방식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다. 약 2개월에 걸친 논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조금씩 그 차이를 좁혀나감으로써 드디어 2002년 3월 공립문고 협약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마을마다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금씩 서로의 처지 및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간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활동방식을 가졌던 집단들이 서로간에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갈등을 수차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시립도서관이 공립문고 예산 운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작은도서관분과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등 열린 자세로 공립문고 설립 및 운영을 해나감으로써 공립문고 설립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2001년 7월말부터 시작한 공립문고 설립 사업은 일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립문고까지 참여하는 작은도서관분과에서 공립문고 선정 작업부터 예산안 작성까지 모든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임에 분명하다.

5. 공립문고의 설립 및 운영

2001년 작은도서관분과에서 선정한 6개 공립문고 대상지 중 고강·원종·심곡·삼정복지관과 약대동주민자치센터는 2002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연내에 공립문고가 설립되었으며,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에 설립예정이었던 공립문고는 2002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 초에 개관식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심곡2동에도 새로 건립된 주민자치센터가 공립문고 설치를 희망함에 따라 2002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에 개관식을 가지게 되었다. 즉, 2002년에는 총 7개의 공립문고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5개의 공립문고가 실제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표4-1>참조)

<표 4-1> 공립문고 설립 현황

공립문고명	위탁단체	위치	성격	협약일	개소일	면적(㎡)
도란도란도서관	가톨릭대학교	고강복지회관	어린이도서관	02.3.22	02.4.1	93.03 (28평)
새싹도서관	대한불교 조계종	원종종합복지관	어린이도서관	02.3.22	02.5.1	126 (38평)
복사꽃필무렵	기독교대한감리교	심곡복지회관	가족도서관	02.3.22	02.6.4	77.57 (23.4평)
아름드리도서관	서울신학대	삼정복지회관	가족도서관	02.8.16	02.10.28	132.2 (40평)
약대신나는 가족도서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롭교회	약대동주민자치센터	가족도서관	02.11.11	02.12.24	105.6 (32평)
꿈나무 가족도서관	한국지역사회교육 연구원	역곡3동주민자치센터	가족도서관	02.12.18	03.2.14	209.46 (63.4평)
햇살이가득한 도서관	한국지역사회교육 연구원	심곡2동주민자치센터	가족도서관	02.12.18	03.2.27	256.6 (77.6평)
행복한도서관	실업극복부천시민 운동본부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가족및노동도서관	03.3.13	03.4.9	89.26 (27평)
사랑나무 가족도서관	한국노총 부천시지역지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가족도서관	03.12.17	04.2.9	90.9 (47평)

고강·원종복지관은 2001년에 이미 복지관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중이었으나 인건비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으로, 공립문고로 도서관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전문사서가 채용되고 도서관 시설과 자료가 보완되어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률의 급증 등 도서관의 이용률과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심곡복지관과 삼정복지관의 경우에는 공립문고 설립시 초기 성인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올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도서관으로 성격을 바꾸었다. 현재 어린이와 성인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약대동주민자치센터에 설립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은 88년부터 마을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약대글방이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건립 계기와 그간 진행해온 약대동마을만들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립문고 설치를 요구하여 이루어낸 것으로, 이는 문고 설치를 위한 자발적인 요구와 의지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부터 청소년·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의 ‘가족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마을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잘 표현해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후 설립되는 공립문고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전문서적 및 컴퓨터 등을 갖춘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운영은 약대동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공립문고가 마을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 속에 어떻게 뿌리내려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2002년에 설립 예정이었다가 공사 및 위탁 단체 선정 등의 지연으로 2003년 초에 개관을 한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의 ‘꿈나무가족도서관’과 2002년 공립문고 설립 대상지에는 없었지만 새 건물 이전에 따라 문고 설립 요청을 한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의 ‘햇살이 가득한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위탁법인을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그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벌여왔던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위탁을 받게 되었다. (<표4-2>참조)

<표4-2> 시립도서관의 공립문고 운영법인 모집 공고

역곡3동, 심곡2동 공립문고운영법인모집재공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공립문고운영자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1. 건 명 : 부천시 역곡3동, 심곡2동주민자치센터내 공립문고 운영
2. 설치장소
 - 역곡3동주민자치센터 3층 :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8-1번지
 - 심곡2동주민자치센터 3층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5-3번지
3. 설치면적
 - 역곡3동 공립문고 : 지하1층, 지상 3층 중 3층 209.46㎡(63.4평)
 - 심곡2동 공립문고 : 지하1층, 지상 5층 중 3층 262.2㎡(79.45평)
4. 설치목적 : 도서관 분관으로 연계한 주민밀착형 도서관서비스 제공
5. 신청자격
 -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조정관계 능력등을 갖춘 부천시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 사회복지관의 경우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법인및 단체를 우선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센터내 공립문고 설립시에는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함
 - 부천시 관내에서 박물관, 문화원등 공중이용시설을 운영중에 있는 학교법인, 사회복지 및 종교법인
6.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02. 12. 12 ~ 12. 16(5일간)
 - 접수기간 : 2002. 12. 12 ~ 12. 16. 17:00 까지
 - 접수장소 : 부천시립도서관 사무실(원미구 원미1동 15번지)
 - 제출서류
 - 공립문고설립신청서(소정양식) 1부.
 - 기타증명서류(도서관관련 사업수행 경력) 1부.
 - 사업계획서 1부.
7. 설치운영자 발표 : 2002. 12. 20 일경
[인터넷주소 : <http://www.bucheonsi.com>→알림]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시립도서관(열람팀320-2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시립도서관(담당자 : 김관성, 운영팀장 김주홍 032-320-25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주소:<http://www.bucheonsi.com>→알림, List →모집시험공고]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그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많은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로 학교와 마을도서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도서관 활성화의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간 협의회 내에 조직되어 있던 어머니학습동아리가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어린이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2002년의 공립문고 설립 및 운영사업은 원래 예정보다 다소 늦게 설립된 문고도 있었지만 부천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분과의 협력하에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분과에서는 이러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의 성과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집과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고자 12월에는 시립도서관과 공동주최로 ‘책을 가까이, 도서관을 가까이’라는 주제의 도서관공동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부천 지역의 시립도서관과 공립문고, 작은도서관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립문고의 현황 및 소개를 담은 부천지역 도서관 공동 팸플렛을 만들고, 각 도서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책갈피를 제작하여 부천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 도서관의 홍보와 함께 각 문고 순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고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표4-3> 2002 부천지역도서관 공동행사 기획안

이러한 2002년의 공립문고 설립과 운영 성과를 이어받아 2003년에는 공립문고 설립을 시립도서관을 주축으로 벌여나가기로 하였고, 시립도서관에서는 2003년에 공립문고 3곳을 더 설립하여 2003년까지 총 10개의 공립문고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부천시노동복지회관에 ‘행복한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행복한도서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도서관의 성격 뿐 아니라 소규모공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도서관의 성격을 함께 갖추고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 늦은 저녁시간까지 도서관을 개방하는 등 행복한 도서관은 도서관운영에 상당한 열의를 갖고 오정구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말에 협약을 체결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랑나무가족도서관’은 2004년 2월 개관식을 갖고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복지관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표4-4> 2004년 현재 공립문고 운영 현황

이렇게 2004년 현재까지 총 9개의 공립문고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10번째 공립문고가 소사본동 주민자치센터에 설립될 예정이다. 각 공립문고는 이전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기존 공립문고와는 달리,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도서의 대출반

납 뿐 아니라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공립문고는 자체 운영 뿐 아니라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산하에 사서분과를 두고 각 문고의 실무자인 사서들과 시립도서관 사서, 협의회 총무가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학습 등 사서간 네트워크를 통해 공립문고의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서분과의 조직은 문고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3년여에 걸친 공립문고 설립 및 운영의 성과는 앞서 밝힌대로 이전부터 내려온 시민운동의 역량과 민·관 네트워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부천시의 열린 정책, 그리고 지역도서관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천시립도서관의 의지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천지역은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매년 공립문고의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마다 하나씩 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6. ‘마을마다 도서관만들기 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금까지 ‘마을마다 도서관만들기 운동’으로 추진해온 공립문고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천지역의 이러한 공립문고 설립 사업은 비록 3년여의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성과를 데이터화할 만큼 축적된 결과물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최초의 사례로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의 운동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큰 틀로서의 전환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1)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성과

① 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지역이나 성별,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평등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도서관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도서관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부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운

동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이 누구나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도서관의 기본 설립목적에 충실한 도서관운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도서관 운영에의 시민 참여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공동체의 육성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부천지역의 도서관 활동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활동을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기반을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부천지역의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사업은 민과 관의 협력으로 그 성과를 이루어 낸 사업으로, 도서관의 성격이 공립문고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민과 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운동의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데 또 하나의 강점을 가진다. 즉 시립도서관의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의 노하우와 민간 영역의 창조적인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양성, 적극적인 지역주민 대상의 서비스와 활동, 더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도서관 제 법령 및 지원 등에 대한 요구 등 민과 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도서관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부천지역의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운동은 상호대차서비스 등 지역도서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천지역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편의성 증진과 평생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타지역의 경우 상호대차서비스가 시립도서관간에 한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의미가 시민들에게 전해지는데 한계가 존재하는데 비해 부천지역은 마을마다 만들어진 공립문고를 통해 지역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현재 부분적인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푸른부천²¹ 작은도서관분과의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2004년 2월에 설립된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의 출범은 지역시민단체까지 포괄한 지역 민간 역량의 집결로서 부천지역의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위상 및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각 공립문고를 위탁한 법인대표, 시의원, 시립도서관 관장, 평생학습센터, 시민연합회장 등으로 구성하여 민·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의 정책기조는 지속해갈 계획이다. 협의회 산하에는 공립문고 실

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사서분과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부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서 및 자원봉사자 공동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립도서관과 공동으로 부천지역공동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문제점 및 과제

① 공립문고 지원예산이 1년에 3천7백만원 정도로 사서 1인 인건비를 제외하면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공립문고의 서가는 비어 있는 곳이 많으며, 프로그램 운영 또한 한계지워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공립문고의 사서가 1인밖에 없고, 보조 인력 또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사서들의 업무 부담이 크고 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어 지속적인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성과를 모아내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운영 성과의 데이터화를 통해 공립문고 운영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공립문고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중간평가를 통해 기존 공립문고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공립문고가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주민자치센터에 설립된 공립문고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의 긴밀한 연계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운영시간을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진행하고자 해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관리 및 보완 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와 시 행정에 종사하는 인사들을 포함한 보다 확대된 도서관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공립문고가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등의 협력관계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립문고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주민자치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립문고 운영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는 것이다.

③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진행해감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천지역의 현황에 대한 지표조사와 더불어 위탁법인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도서관 설립 위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즉, 부천지역의 도서관 현황 및 공공건물에 대한 파악을 통해 마을마다 무조건적인 하나씩의 도서관 설립이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을 따져 반경 몇 킬로 이내 등의 기준을 정하여 설립 위치를 설정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연령대 및 욕구 조사 등을 통해 그 지역 특성에 따

른 도서관의 성격 규정과 더불어 위탁법인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여 공립문고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 조사는 공립문고 설치를 요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인 도서관 사업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2001년부터 만 3년동안 이루어진 부천지역의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앞서도 밝혔듯이 비록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첫발을 내딛고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여서 이루어낸 성과보다 해야할 과제가 많은 시점이다. 공립문고의 질적인 발전,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와 시립도서관의 파트너십의 관계, 민간 역량의 위상 및 역할 수립 등 부천지역의 작은도서관 운동의 발전을 위해 보다 깊은 연구와 방안 모색,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도서관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바라는 점은 지역 도서관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립도서관과의 공동 보조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 운동은 도서관운동이며, 따라서 지역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자기 성격과 역할을 지켜나가면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꾀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공간으로의 학교도서관

가 명 현(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

1.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공간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것과 함께 있는 도서관도 생활권과는 너무 멀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유용한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과연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속에 도서관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도 미천하고 특히 도시변두리, 농어촌지역으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제안은 경기도 지행초등학교 사례를 통하여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지행초등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광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실천 사례보고가 있었다.

그 사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열린 도서관으로 오세요'.

학교측은 최근 80여평의 도서관에 아동도서 6만여권과 일반도서 4천여권 그리고 4대의 온라인 인터넷시스템과 도서검색 프로그램을 갖추었다.

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30여명의 학부모 자원봉사 도우미를 위촉, 2인 1조로 도서대출과 도서관리 도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 도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활동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학교 사서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주하고 있어 인근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생, 주민들까지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은 하루 평균 학생 200여명과 주민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측은 도서관 개방으로 인해 컴퓨터게임에 빠져있던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 순화는 물론 올바른 생활 지도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5일제 근무 확대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지역 주민들에게도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행초교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 도서관이 교직원들의 퇴근과 함께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열린 도서관이 청소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2.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이 되려면 지방행정이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학교도서관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방행정이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선 학교 도서관건물 및 위치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를 재건축 및 신설할 당시 지방자치기관과 함께 상의하여 도서관 위치 및 규모를 미리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과감하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전문사서가 배치되고, 충분한 장서와 그리고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도서관의 실태

사실상 공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상당부분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① 학교도서관 설치율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4조에 의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2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 10,188개교 가운데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82.7%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설치율은 76%에 그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설치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설치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2001년에 들어와 다시 설치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 설치에 노력한 것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의 추진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설치현황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와 경기도의 설치율은 90%를 넘고 있지만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6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2000년에는 20%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의 직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담직원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법으로는 학교도서관에 일정한 수의 직원(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을 두도록 했으나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서교사 배치는 매우 미비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큰 제한점이 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직원은 총 2,432명, 1관 당 겨우 0.29명에 그치고 있다. 2001년 0.25명보다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배치수준은 극히 미비할 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부 기획관리실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이 2000년 시행한 조사에서도 사서직원은 1,593명으로 도서관 당 0.2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1999년 현재로 140명이었다.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로는 겨우 139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1.38%로 전무에 가깝고,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7,918개 학교의 1.75%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전국적으로 초·중·고생의 98%에 이르는 156만여 명이 사서교사의 전문 정보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고 열

린교육,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2년 현재 209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그 절반에 가까운 48%의 사서교사가 서울특별시에 배치되어 있고, 경상북도에 18%,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6%, 경기도 8%, 전라남도 9% 등 6개 지역에 93%에 이르는 192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라북도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사서교사 배치가 매우 불균등하다. 또한 고등학교에 67%인 139명이 배치되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각각 17%인 35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99개교라는 학교 수를 고려할 때 배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85%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최근에 사서교사 임용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 사서교사의 문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③ 학교도서관의 예산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사서직원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1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1개교 평균예산은 1관 당 318만여 원이다. 중학교 도서관이 253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예산으로 볼 때에는 고등학교가 가장 적은 1인당 3,274원이다. 비록 학교도서관의 경우 예산이 대부분 자료구입비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사실상 장서구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도서관 운영은 학교교육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 행정기관 및 학교 책임자, 전문사서, 지역 사회문화 관계자, 지역 자원봉사자, 학부모봉사자 및 교사들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써 학교도서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어린이열람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김 명 진(책읽어주는 엄마모임 회원)

요즘 누구나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 보이려고 애 쓰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크고 멋진 도서관, 장서가 아주 많은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그것보다는 언제나 쉽게 갈 수 있는 도서관, 재미있는 도서관, 편안한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에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과 이런 도서관이었으면... 했던 바람들을 얘기해보겠다.

1. 도서관 위치의 문제점

필자는 다행히도 도서관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그래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지만,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을 두고 있다고 해도 자주,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못한다. 그건 도서관이 동네에서도 조금 멀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오르막 길을 한참 가야지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랑 도서관 가는 길은 꼭 운동하러 가는 길 같아서 책을 보기도 전에 땀범벅이 되고 힘이 쭉 빠져 자꾸만 집에 가고 싶어진다. 그런 와중에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갈라치면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도서관직원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아이들만 아니면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도서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필자가 알고 있는 도서관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크고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더더욱 멀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은 크고 웅장한 관청같은 느낌의 도서관보다는 동네 슈퍼처럼 언제나 그곳을 드나들 수 있고 유모차를 밀고 들어섰을 때 '어서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라는 인사 한마디부터 건네는 도서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도서관은 여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곳

사회가 참 많이 변했고 빠르게 변해 가는데 아직도 도서관은 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은 대출과 반납의 의미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용자 또한 도서관은 책 빌려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도서관은 안일한 곳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서들도 책 창고를 지키는 사람쯤으로 여기게 되어 우리 도서관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도태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또 전자도서의 발달로 그런 위기는 어쩌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며, 어린이 열람실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 이외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다양하게 접근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가끔 여러 비도서자료들이 캐비닛 안에서 몇 년 동안 이용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고, 잘 갖추어진 유아열람실의 대형 TV가 먼지만 쌓인 채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면 '저걸 잘만 이용하면 책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새로운 무언가에 늘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텐데...' 싶기도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필자는 안일하게 이용자에게 대처하는 어린이도서관의 사서선생님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서선생님을 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너무나도 컸음을 말하고 싶

다.

3. 사서의 자질

미국의 사서들은 학부를 졸업하고 문헌정보학을 나온 사람들로서 그 주제전문사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서들은 대부분 학부출신들이거나 기능직 사서들이 많아서 도서관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잘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사서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또 도서관에서 산만스러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실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아이들과 잘 교감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고, 좋은 도서를 선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개발하고 어린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도서관에 가면 시중에 나온 전집류의 책들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어린이 책들이 전집류로 많이 출판되는 특징도 있지만 어린이실의 사서가 참 아이들의 책을 모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앞서게 된다.

좋은 사서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책들을 접하게 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4. 도서관은 늘 조용히 해야 하는 곳?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책을 가까이 하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온전히 조용한 곳으로만 남아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아이들은 그 기질상 한곳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부모님이나 사서 선생님들께 금방 주의를 듣고도 얘기하고 떠들고 웃는다. 그런 아이들을 계속 조용히 시키고 주의를 주고 하다보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입장에서도 꾸중을 듣는 아이입장에서도 도서관은 그리 즐거운 장소는 되지 않을 것이며, 빨리 그곳을 나오고 싶어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 어린이열람실에서는 가끔씩 책 읽어주는 시간이나 독후활동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시간들은 사서 자신의 일들이 아닌 봉사자들의 일인 것처럼 여겨 아주 등한시 해버리기 일쑤고 시끄럽거나 주변 정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절대 도서관이 발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 도서관은 자기 도서관들의 이용자가 많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강좌를 열고 도서관에서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상영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그곳에 가면 늘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좋은 사서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고,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닐까. 도서관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사서와 이용자 또한 자발적인 봉사로 서로 잘 융화 되어질 때 도서관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5. 어려운 분류번호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보면 분류번호와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용자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다. 또 분류번호를 이해한다고 해도 여기저기 섞여있는 자료들 중 내가 필요한 책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시리즈 중에서 어떤 것은 역사류에 어떤 것은 과학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전집류는 그냥 일괄적으로 출판사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창작물과 외국의 창작물이 마구 섞여있기도 하다..

따라서 아이들의 책이라도 제대로 분류가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류지침이나 표지판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은 책을 마구 흐트러 버리거나 아무데나 책을 꽂아두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하는 책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어린이 도서관의 사서들은 이 점을 감안해 자주 자주 서가 정리를 해 두어 책이 항상 제자리에 꽂혀있게 해야 할 것임니다.

6. 도서관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모자라....

필자는 작은 도서관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매번 동화를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지만 늘 마음 한구석은 불편한 점이 있다.

그건 정말로 동화를 접하지 못하고 동심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을 찾는 유아아이들을 보면 모두 책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의 손에 의해 도서관을 찾고, 결국 이 아이들이 커서 도서관과 가까운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책이 필요한 아이들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생소하고 잘 가보지 않아서 또 책이 주는 재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점점 도서관과는 멀어지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언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덩치 큰 도서관이 아니라 자그마하지만 그곳에 가면 좋은 동화를 많이 읽을 수 있고 선생님같고 엄마같고 친구같은 사서선생님이 있어 컴퓨터 게임이나 폭력만화에 빠지고, 학원에서 지식의 습득만 강요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필자가 느끼고 바라는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마을마다 도서관이 생겨서 골목마다 책 읽는 소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민동 모퉁이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마을마다 가장 소중한 곳이 되길 꿈꾸며

-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의 현재와 바람 -

박 미 라(대전 모퉁이어린이도서관 대표)

1. 들어가며

한 교수가 어떤 재단의 후원으로 전민동 지역주민의 자회자본을 조사하려고 도서관에 온 적이 있다. 몇 사람을 만나보니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이야기를 하며 도서관에 가 보면 전민동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알려 주었다고 했다. 아파트 한 가운데는 구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이 있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있으며 그 위층에는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다. 비록 마을의 모퉁이에 있지만 사람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은 어린이도서관이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되느냐, 설립취지가 무엇이나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의 의의와 과제를 토론하

는 자리에서 현 지역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의 나아갈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이 있기까지.

1998년 갈마동에 선배어린이도서관이 한사람의 노력으로 설립되었다. 2000년 3월 전 민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몇몇 사람이 함께 하게 되었고, 2002년 3월 모퉁이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며 지역주민공동체도서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책 한 권, 올바른 의식을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을 권해 줄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에게 그 옛날 골목 문화를 넘겨받아 동아리 문화를 꽃 피우게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모든 일을 지역사회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소중한 주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표와 부대표, 총무, 운영위원들이 있으며, 모든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서 자원봉사자와 여러 부분의 자원봉사자, 독서모임의 회원들이 모여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미흡하긴 하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모퉁이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까?

(2003년도에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 도서관내 활동

1) 슬라이드 / 비디오 상영 : 격주 화요일

가로-세로 낱말 퍼즐 : 격주 진행

2) 문자-전민 초등학교 책 대결 : 4월14일 ~ 5월31일

3) 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

- 일일 도서관 이용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 여름방학 프로그램

4) 작가 작품전 : 동화 작가 작품 전시, 작가 파일, 슬라이드 제작 상영, 작가와의 만남

5) 책 읽어주기

* 지역문화행사

- 1) 평화 한마당 : 6월1일 / 근린공원
- 2) 함께 만드는 마을잔치 '우리 같이 놀래?' : 10월26일 / 근린공원

* 나누는 일을 실천하는 활동

- 1) 모퉁이 이동문고 : 대전 시내 11곳 공부방 지원
 - 2) 공부방 어린이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 매 달 공부방 아이들 독후 활동
- * 모퉁이어린이도서관 학교 : 10월1일 ~ 12월11일 11회 강좌

4.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의 숙제와 나아갈 길

모퉁이어린이도서관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단지 모퉁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 모퉁이의 문제를 내놓으며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1)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없다.

어린이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생각만큼 어린이들이 오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아이들이 혼자 오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위치하여 오며 가며 들르는 곳이 되어야 마음먹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둘째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너무 많은 교육에 내몰리다 보니 도대체가 시간을 내어 도서관에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책읽기도 하나의 과목이 되어 사교육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2) 어린이도서관다운 환경이 절실하다.

모퉁이는 지하 30평 규모라 어린이도서관이 있기에 적당하지 않다. 도서관을 옮기는 문제를 적극 추진 중이나 관에 계신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3) 공공성을 갖기 위해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도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예산 면에서 완전 자립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운영위원 회비, 일반 후원회비등으로 예산의 비중을 높여가고는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다.

회의와 자체 내 교육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는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부분의 일이 있음에 한계를 느끼곤 한다. 문헌정보학과와 연계를 생각 중에 있다.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사립문고에서 지역주민공동체도서관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이 만든 공립문고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주민과 봉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